

광주 트라우마센터 내년 법인화 추진 '속도'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용역

군부 독재 피해 치료 주력

국비 확보 과제로 남아

광주시가 국가 공권력 피해자의 치유공간인 트라우마센터 법인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현재 시 직영 형태로 운영 중인 트라우마(trauma·정신적 외상)센터를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아시아 인권 허브의 기

능을 수행하겠다는 의도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행정자치부 등과 트라우마센터 법인화 협의의 마친 뒤, 이르면 연내 설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화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최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직영이나 위탁 대신 출연기관 형태의 법인 설립을 확정하고 윤장현 시장의 최종 결심을 받았다. 명칭도 알코올, 우울증 등 정신

영역이 강조되는 트라우마센터보다는 국가폭력 치유센터(가칭)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시아 상당수 국가에서 군부 독재 등에 맞서다 피해를 본 활동가 등의 교육과 치유 등 인권 허브 역할을 기대한다.

하지만 부실·방만 운영, 지자체 재정난 가중 이유로 행자부가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강화한 점은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센터는 2012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지난해까지 국비

와 시비를 투입해 운영됐다. 올해는 정신보건 시범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끊겨 9억여원의 사업비는 시비로 충당됐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국가공권력 피해자 등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관리하고 있다. 개인·집단·가족 상담, 예술 치료, 교육·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법인화 추진과는 별도로 계약이 만료한 센터장을 내년 초 공모를 통해 뽑기로 했다.

/최희종기자 cki@kwangju.co.kr

자치구 경계조정·재원 협력

광주시 '자치분권 토론회'

광주시에 자치구와의 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가 나왔다.

광주시는 27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광주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시·자치구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와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인 광주대 류한호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이 발제했다.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은 "전국 6개 자치구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폐지 논란과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재정 압박, 자치구간 경계조정 등 3대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열쇠는 광역지자체와 자치구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 간 협력방안으로 현재 제도화돼 있는 광주시와 자치구 간 정책협의회, 광주공동체상생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복지비 등 자치구 재원 확충을 위한 협의 강화, 자치구 마을분쟁해결센터 확대, 주민자치회 활성화, 광주시 분권협의회와 자치구분권협의회의 연합 분권협의회 출범 등 협력 채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엘로카펫'으로 한번 더 어린이 안전 생각

광주 광산구가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엘로카펫'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27일 광산구 첨단2동 주민들에 따르면 월계초등학교 등 11개 초·중·고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엘로카펫' 설치를 최근 완료했다. '엘로카펫'이란 횡단보도 바닥면과 주

변 담장을 쉽게 눈에 띄게 노랑색을 칠하고, 동선에 노랑 발자국을 그려 넣은 것이다.

이번 '엘로카펫' 설치사업은 26개 횡단보도에 노란발자국과 주변 담장 7곳에 벽화를 그려 넣는 등 지난 10월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2개월 동안 직접 설치했다.

/광산=최승렬기자 srchoi@

내년 쓰레기 연료화 시설 가동...분리배출 철저

광주시는 내년 1월2일부터 가동되는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에 반입되는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쓰레기를 모두 SRF시설로 반입, 파쇄

와 선별 건조 등 과정을 거쳐 반입량의 61% 이상을 연료로 제품화하고 나머지 금속류를 제외한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은 매립할 계획이다.

SRF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입되는 쓰레기의 상태가 중요한 만큼 재활용품, 음식물,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

일반쓰레기만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쇠못치, PVC 등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파쇄기 등 기계장치가 고장날 수 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은 홈페이지 'ECO푸른도시광주(http://eco.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물 제작 배부와 시내버스·지하철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수거 및 반입 시 SRF 시설 현장에 상주하는 감시원을 통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김석준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앞으로 모든 생활쓰레기가 SRF시설을 통해 처리되므로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동주택관리센터' 공동체 활성화 기여

내년 '아카데미' 운영도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 간의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등에 대한 민원과 이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 등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분쟁 내용도 관리비 부과에서부터 동대표의 선출, 각종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비 집행, 회계처리 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전문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원스톱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인력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조사위원 위촉 및 전담 공무원 배치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원센터는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처리가 어려웠던 고질적인 분쟁민원 및 입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었던 14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조사와 상담, 회계, 법률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

시하고, 화해, 조정 또는 행정조치를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와 깨어진 마을공동체를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분쟁발생 단지의 사후적 해결은 물론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입주민 등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근간이 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하고,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처우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의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 회복 및 인권에 대한 재인식,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함께 만들어 더불어 행복한 공동주택' 홍보영상 제작 배포했다.

윤장현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계획 중이다"며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광주·운천·금남로4가역

건강계단 이용하세요

광주지하철 계단이 건강을 나누는 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협업을 통해 금남로4가역<사진>, 남광주역, 운천역에 건강계단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계단에는 걷기운동의 효과 등 건강정보와 슬로건들이 재미있는 그래픽으로 표현돼 있어 시민들이 지루함 없이 즐겁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다.

계단오르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0.15kcal을 소모해 수명을 4초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근력강화, 체지방 감소, 혈액순환 강화 등에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광주시 정순복 건강정책과장은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시민들이 따라 시간을 내지 않고 일상에서 운동효과를 느낄 수 있어 큰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정순수 사장은 "건강계단 이용캠페인 등 시민 건강 증진과 지하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p>병원</p> <p>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p>	<p>상가 주택</p> <p>감정가 2억9천, 최저가 2억9천 서구 금호동 / 2층 / 대지 57평 건물 65평 / 안집 32평</p>	<p>경매</p> <p>골프연습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광양시 성황동 / 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50타석 / 실외스크린 12층 / 중마초등학교 서측</p> <p>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 4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 일반상업지역 / 54호실 / 코너 / 수익률 14.7%</p> <p>상가 감정가 16억, 최저가 16억 서구 치평동 (삼우지구 세정아울렛) / 4층 중 1층 / 건물 35평 / 코너 / 주차장</p> <p>모텔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p>
<p>첨단 상가 15억 월세 1000만원</p>		<p>매</p> <p>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p> <p>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군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p> <p>수익형 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p> <p>모텔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p> <p>임대 수익형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p> <p>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층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p>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